

# 기회발전특구 선정 목포 신항만 해상풍력 거점 도약한다

### 1단계 항만배후단지 41만6529㎡... 재정·규제 특례 등 지원 덴마크 베스타스와 터빈 공장 협약...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최종 선정된 목포 신항만이 '해상풍력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정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됨에 따라 목포 신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3월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12만6000평(41만6529㎡)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됐다.



목포 신항만 해상풍력 배후단지가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서 '해상풍력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목포시 제공>

목포 신항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상풍력을 내건 목포시는 신항을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구실을 할 거점항만으로 만들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유입 인구 증가 등의 지역경제 효과를 꾀할 수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신청해 신항 2단계 배후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덴마크에 있는 세계 1위 터빈(동력기관) 제조사 '베스타스', 해운사 '머스크'와 신항 내 베스타스 터빈공장 설립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목포시와 두 기업은 내년 초 착공을 위해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우리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좋은 밑거름"이라며 "기업은 물론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흥어장수 문순득 기리는 '신안 문페스타' 도초도서 열린다

### 마당극·'섬 로드 스콜라' 등 26·27일 이틀간 다양한 행사

극단 깃들이 신안 우이도 출신 흥어장수 문순득(1777~1847년)을 기리는 '신안국제문페스타(이하 신안문페스타)'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도초도 수국공원 등지에서 연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 흑산도에서 흥어를 사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 오키나와, 필리핀 비간, 마카오 등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긴 거리를 3년 2개월 동안 표류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번 축제는 인위적인 대형 쇼 무대를 벗어나 꽃이 자라고 있는 도초 수국원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또 비금도, 도초도, 우이도까지 섬에서 섬으로 연계해 이동형 행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꽃과 함께 퍼포먼스, 수국 버스킹, 섬 로드 스콜라, 해양 탐험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안문페스타는 문순득 표류 마당극 공연을 시작으로 꽃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작가들이 참여한다.

한지 조형 작가로 유명한 로즈박, 섬진강 국제 실험예술제 김백기 예술감독, 한국 최초의 부모 무용가 서승아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수국 꽃밭에서 그림 같은 퍼포먼스로 판타지를 펼친다.

수국 버스킹에는 신안 출신 소프라노 문안나, 하모니카 연주가 배숙자, 통기타 가수 정옥례가 출연하여 수국의 꽃말을 노래로 풀어내는 낭만적인 공연을 선사한다.

축제 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은 '섬 로드 스콜라(Road Schola Island)'이다.

'섬 로드 스콜라'는 여행자들이 1박 2일 동안 비금도, 도초도, 우이도 섬을 돌아다니면서 섬의 다

양한 문화와 역사를 탐험하고, 함께 놀면서 배우고 연대하는 해양 프로젝트이다.

여행자들은 비금도 내촌마을을 비롯해 도초도 외남리 석장승, 화도 골목 등지를 탐방한다.

다음 날에는 우이도 진리마을 정약전 서당 터 및 유배지, 진리 서당터 등, 문순득 생가 등을 여행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민속 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민속학자 이운선 교수, 신안군정 이재근 학예연구사가 길동무로 자청해 섬의 생태, 생활, 역사 등의 미의식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다.

한편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깃들은 2010년부터 문순득의 표류 여정을 소재로 한 마당극 제작을 비롯해 오키나와,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다져왔다. 2019년부터는 문순득을 축제로 승화시켜 신안의 해양 문화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최근 문을 연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에서 어린이가 분리수거를 체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녹색융합 클러스터 밀그림... '탄소중립 1번지' 속도

### 환경부 공모 선정 450억 들여 솔라시도에 3만4000㎡ 규모 조성

해남군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녹색융합 클러스터' 밀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해남군은 최근 환경부, 전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중립 1번지'를 내건 해남군은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3만4000㎡ 규모 '녹색융합 집적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태양광 사용 후 폐패널의 재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연구·개발(R&D) 시설과 실증 성능시험장, 시

범-인증센터, 기업 지원시설 등을 갖춘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기본구상계획 용역에 들어간다.

해남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9년에는 태양광 사용 후 폐패널이 국내에서만 6796t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자원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교육과 전시, 체험을 담당하는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받고 있다.

해남군은 녹색융합 클러스터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에 힘입어 환경·사회 책임·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해남형 ESG 경영'을 군정 전 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는 '해남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환경계획'을 세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을 연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 '리필샵',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등도 갖췄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도서관을 찾은 이용객이 2층 그림책 주제 전시를 보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암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 영암도서관 수요 인문학 체험 역사 그림책 전시·영상 제작

영암군이 여름 방학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양한 인문학 체험을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암인문학자료실 활성화 프로그램은 '영암인문학자료실에 가다(暇多)'를 주제로 영암도서관에서 펼쳐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 초등·중등생이 지적 호기심과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5가지로 구성된다.

지난해 도서관에 문을 연 영암인문학자료실에서는 영암의 역사 인물과 설화·전설, 미술·음악 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2층 북독에서는 '그림책 전시'가 열린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림책과 환상동화 계보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1926년 일본 발간 나가무라 료헤이의 '조선 동화집'을 포함해 마해승, 윤석중, 강소천 작가의 초반본 그림책 표지를 인쇄한 나무 책도

볼 수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영암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가 어린이들을 맞는다. 지난해부터 영암 영·유아 교육기관을 돌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가 지역 전설·설화 등 옛이야기를 맛깔나게 들려준다.

'슬라이드 만화 영상 감상'에서는 '고려 건국 공신 별 박사, 최지몽'을 볼 수 있다. 만화 형식의 영상 제작에 영암군 직원들이 참여했다.

'도안 컬러링, 원목 퍼즐, 엽서 쓰기'에서는 옛이야기 그림책 도안 색칠하기, 원목 도형 맞추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견학 등 체험이 끝난 뒤 느낀 점을 엽서에 그림과 짧은 글로 남겨 볼 수도 있다.

영암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초여운 작가의 그림과 영암 옛 지도 등이 담긴 총 12종의 엽서가 마련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책으로 소통하도록 프로그램의 내실 있게 하겠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도입해 책과 사람, 문화가 넘쳐나는 인문도시 영암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경찰이 최근 연 '목포 시니어 소통협의체'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목포경찰 '시니어 소통협의체' 위원 11명 위촉

목포경찰은 최근 경찰서 이준규홀에서 '목포 시니어 소통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 시니어 소통협의체는 고령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7개 기관 11명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소통협의체는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보호·지원과 예방 활동을 벌인

다. 개별적으로 활동해온 기관들은 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인 정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 관련 범죄 외에도 노인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시니어 소통협의체가 노인들의 일상확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광군민 선거법 위증사범 수사 촉구 1인시위

영광 주민들이 강중만 전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위증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

영광읍에 거주하는 A씨는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선거법 위반 위증으로 인해 군수직을 상실한 강중만 전 영광군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지난날 27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군수직 상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영광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들과 위증자 때문에 힘들어졌다"면서 "1인 시위가 커다란 영향은 없더라도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중만 전



영광군수는 지난날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영광=김정희 기자 kcw@kwangju.co.kr